

태평양회의와 신규식*

김 희 곤**

국문초록

신규식은 1910년대에 상해에 한국 독립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신해혁명에 발을 디딘 뒤로 중국 혁명인사들과 교류하였다. 그의 활동은 상해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뒤, 그는 몸이 아파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러다가 1920년 12월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상해를 방문하자, 신규식은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역으로 적극 나섰다. 1921년 4월 광둥에서 호법정부가 세워지고, 5월에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 하와이로 향하게 되면서, 정국 운영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신규식이었다. 여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 협력관계가 성립되었다.

이승만이 상해의 혼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떠나면서, 그에게는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해낼 인물이 필요했다. 정국 안정은 말할 것도 없고, 마침 세워진 광둥정부로부터 외교활동을 펼쳐 승인받거나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더구나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듣게 된 태평양회의 개최 소식에 이승만으로서는 신규식의 활약이 더욱 필요했다. 이승만에게는 광둥정부로부터 태평양회의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신규식이 가장 적합한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태평양회의에 광둥정부 대표 파견을 요청하자, 신규식은 이들 대표와 공동대응책을 만들어낸다면 외교활동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래서 그는 국무총리와 법무·외무총장을 검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승만에게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만들어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광둥정부로 가서 손문을 만나 도움을 청했다.

신규식은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회의에 공동대응하자는 것이다. 손문은 이에 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관이 광둥에 머물게 허락하면서 체류비도 보조해 주기 시작했다. 또한 손문은 형식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것은 신규식의 외교가 거둔 성과였다.

하지만 태평양회의는 끝내 한국문제를 외면하였다. 미국이 태평양회의에 중국 북방정부도 참가시키자, 광둥정부 대표는 참가를 거부하고 돌아섰다. 따라서 한국문제는 이에 주제로 선정되지도 못했다. 그 후폭풍은 매섭게 몰아쳤다. 잠시 주춤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변의 혼선과 갈등은 다시 재연되고 격렬해졌다. 이에 평소 병에 시달리던 신규식은 급격하게 쇠약해져 순국하고 말았다.

* 본고는 제6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산학연구소(역사문화연구원) 학술 심포지엄 “태평양회의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장 / heegkim2@naver.com

그가 펼친 광동 호법정부와의 외교활동은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였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살려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중국신문이 그의 죽음을 ‘자결순국’으로 평가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주제어] 신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평양회의, 이승만, 손문, 광동 호법정부

| 목 차 |

I. 머리말 II. 이승만 상해 체류 시기 국무총리 취임과 정국 안정 노력 III. 태평양회의 소식에 이승만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IV. 광동 호법정부 방문과 상호 협력 방안 논의 V. 상해 귀환과 최후의 노력, 그리고 좌절 VI. 맺음말
---	--

I. 머리말

睨觀 申圭植(1880~1922)은 上海에 한국독립운동의 터전을 마련한 ‘代父’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특히 1919년 4월 그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던 터전을 만들어낸 데에는 그의 공이 절대적이다. 동제사(1912)·신아동제사(1915)·신한혁명당(1915)·대동단결선언(1917)·신한청년당(1918) 등으로 이어진 그의 활동과 영향력이 3.1운동의 계기를 만들고,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이다.

신규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계는 1919년 4월 건국시기부터 그가 순국한 1922년 9월까지 3년 6개월에 걸쳐 지속되었다.¹⁾ 신규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가진 관계는 네 개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시기는 건국과 정부수립을 논의하고 현실화하던 단계이다. 둘째는 1919년 4월 30일부터 1920년 3월까지 임시의정원 의원, 부의장, 임시정부 법무총장 등을 역임한 시기였다. 셋째는 1920년 10월부터 1921년 5월까지로,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한 뒤 신규식이 내각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고, 1921년 5월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 하와이로 향할 때, 국무총리대리로 임명되었다. 넷째 시기는 이승만이 상해를 떠난 뒤 국무총리대리 겸 법무총장으로서 정국을 정리하고 호법정부와 외교활동을 펴던 1921년 5월부터 그해 연말, 모든 직임을 사직한 1922년 3월까지이다. 태평양회의에 대한 신규식의 활동은 마지막 네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더 줄이면 Warren G. Harding(1865~1923) 미국 대통령이 1921년 7월 회의를 제의하면서 본격화되어, 이듬해 2월 마무리될 때까지로 7개월 남짓했다.

신규식의 활동에는 이승만 임시대통령의 행적과 얽히고 맞물렸다.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하면서 신규식의 활동은 역동적으로 움직였고, 이승만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신규식은 국무총리대리 겸 법무총장을 맡아 정국

1) 김희곤,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연구』, 지식산업사, 2015.

안정을 추진하거나 태평양회의의 소식에 철저히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운명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 발표는 태평양회의에 대한 신규식의 활동을 주제로 삼고, 이승만의 상해 체류와 관련된 신규식의 활동부터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II. 이승만 상해 체류 시기 국무총리 취임과 정국 안정 노력

이승만 임시대통령이 상해에 도착하던 1920년 12월 5일,²⁾ 신규식은 법무총장을 맡고 있었다. 신규식은 주요 각원으로 임시대통령을 맞이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였다. 그러나 상황은 이승만에게 거는 기대와 퍼붓는 비난이 심하게 엇갈려 복잡하게 돌아갔다. 민단을 비롯한 정부 주변의 단체와 인물들이 환영 모임을 열던 것과 달리, 반대세력은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높였다.³⁾

1920년 9월 북경 군사통일축성회를 열었던 반대세력은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한 뒤 1921년 4월 군사통일 준비회를 열어 그를 비난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승만이 산적해 있던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자 비판세력의 목소리는 더 커져갔고, 1920년부터 논의되던 국민대표회의의 소집 요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었다.⁴⁾ 이런 상황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었고, 내각을 구성하고 있던 신규식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박은식을 비롯한 원로들과 임시의정원 의원들, 그리고 임시정부 주변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1921년 2월 초에 발표한 「我同胞에게 고향」이란 선언은 이승만과 내각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다.⁵⁾

반대여론이 들끓자,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지탱하던 내각은 대응세력 결집에 나섰다. 당시 내각을 구성하던 인물들이 임시정부의 존재가치를 내세우면서 이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조직된 단체가 협성회였다. 임시정부를 비판하는 선언들이 쏟아져 나온 직후인 3월 5일에는 趙璣九·尹琦燮 등 이승만 지지자 45명이 ‘임시정부 절대 유지’를 주장하면서,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비롯한 임시정부에 절대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였다.⁶⁾ 여기에 내각의 핵심이던 법무총장 신규식과 국무총리 대리 이동녕이 적극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결과 3월 중순, 협성회가 조직되고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와 유지를 천명하고 나섰다.⁷⁾ 하지만 혼란은 그리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2)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154. 『獨立新聞』은 1921년 1월 1일자로 「대통령 來東」이란 기사를 통해 이승만이 12월 8일에 상해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하였지만, 이 날짜는 이승만이 임시정부에 자신의 도착을 통보한 시기로 보인다.

3) 이승만 상해 체류기에 대한 글은 필자가 발표했던 글(김희곤,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연구』, 지식산업사, 2015)을 손질하여 다시 쓴다.

4) 이 시기에는 ‘국민대표회’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지만, 1923년 1월 개회 이후에는 ‘국민대표회의’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다.

5) 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76, 276~278쪽.

6)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3, 1967, 67~70쪽 참조.

4월 12일 신규식은 이동녕 후임으로 국무총리에 내정되었다. 이때는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짜를 저울질하던 다급한 순간이었다. 그러서는 국무원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그런데 이동휘가 의견과 노선의 대립으로 임시정부와 결별하였고, 뒤를 이어 안창호가 임시정부에서 이탈하여 국민대표회 소집을 밀고 나갔다. 연해주와 미주지역을 배경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이승만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다. 여기에다 이동휘의 후임으로 국무총리를 맡은 이동녕마저 정부제도를 고쳐 위원제로 바꾸자고 들고 나왔다가 막히자 물러서버렸다. 이승만으로서는 이제 내각구성마저 힘들게 되었다. 이승만은 상해 정국을 안정시킨 뒤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럴 때 각료 가운데 가장 신임할 만한 인물로 신규식을 선정한 것이다.

이승만에게는 연해주나 미주가 아닌 중국 현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특히 상해의 정서에 맞는 인물이 바람직했는데, 이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신규식이었다. 그는 이미 1910년대의 활동을 통해 중국혁명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승만이 상해에 머무는 동안 줄곧 임시정부 옹호와 유지라는, 우호적인 태도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5월 13일 신규식은 국무총리대리(이하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⁸⁾ 국무총리대리겸 법무총장이 정식 직함이었다.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가 바로 신규식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흘 뒤인 5월 17일 이승만은 敎書를 발표하면서 상해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 12월에 간신히 상해 도착, 국무원의 내부 결속 기도, 의외로 각원의 사퇴문제로 시일을 多費한 지라, 지금에 다행히 각원 제공의 질서가 정돈되었으매 적체된 서무를 점차 집행되기를 바라는 바 본 대통령은 외교상 긴급과 재정상 절박으로 인하여 다시 ○○(渡美일 듯-필자)하기를 각원 제공과 협의 내정한지라……(후략)⁹⁾

이승만이 상해를 떠난 뒤, 신규식이 임시정부 간판을 혼자 메고 가는 형국이었다. '각원의 사퇴문제로 시일을 多費'했다는 말은 정부의 심각한 혼돈현상을 말해준다. 국무총리 이동휘가 등을 돌리고 떠났고, 이승만을 지지하고 나섰던 안창호마저 끝내 물러선 형편이 이 표현에 담겨있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각원 제공의 질서가 정돈'되었다는 말로 상해를 떠난다고 밝혔다. '질서'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신규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월 18일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大統領 渡美에 關한 通知」를 보냈는데, 여기에서도 외교와 재정의 급무로 인하여 떠난다고 밝혔다.¹⁰⁾

그렇다면 왜 신규식은 이승만이 떠난 뒤, 혼돈 정국을 떠맡고 나섰을까. 5월 18일 국무원에게 보낸 「임시 대통령 諭告」에서 이승만은 상해에 체류하면서 부딪친 위임청원문제와 내각 구성, 국무총리 지명 등이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하면서, 군사·외교·재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신규식의 속마음을 짐

7)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東京: 原書房, 1967), 463~464쪽.

8) 「國務院 呈文 제24호」(결재건: 1921.5.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정부수반, 144쪽.

9) 『獨立新聞』 1921년 5월 31일자.

10) 「임시대통령 函 제8호」(대통령 도미에 관한 통지: 1921.5.1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정부수반, 75쪽.

작해 볼 수 있다. 이승만이 제시한 외교방침으로 러시아 치타와 모스크바에 위원을 보내 비밀리에 교섭 연락 할 것, 중화남북정부에 위원을 보내 외교업무를 진행할 것, 런던과 베를린에 구미위원부 아래 사무소를 둘 것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¹¹⁾ 신규식으로서의 '중화남북정부' 가운데 광둥 호법정부에 대한 외교업무가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뒤를 받쳐줄 중국 인사들과 스스로 길러낸 청년들의 지원, 1921년 4월에 광둥에서 호법정부가 수립되고 쑨원이 5월에 비상총통에 취임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자마자 신규식이 저야하는 짐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승만이 도주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날 정도였으므로, 임시정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신규식으로서의 힘겨운 날이 아닐 수 없었다. 신규식이 다시 이승만과 서신으로 연결된 것은 이승만이 상해를 떠난 지 두 달 지난 7월 16일자 편지였다, 이승만은 편지에서 5월 27일 밤에 컬럼비아호를 타고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여 6월 4일 루손에 도착하여 상해로 전보를 보냈으며, 15일에 그뢰넛스테호를 타고 31일(30일 일 듯) 새벽 호놀룰루에 내렸다고 적었다.¹²⁾ 그리고 장봉에게도 같은 날 편지를 보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해의 일은 신규식·신익희와 논의하라고 일렀다.¹³⁾

Ⅲ. 태평양회의의 소식에 이승만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1921년 7월 10일 하딩 미국 대통령이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중국·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 등 8개국에 태평양회의를 제안하였다.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한 뒤였고, 이 소식이 임시정부에 전해진 것은 8월에 가서였다. 이승만이 “태평양회의에 관한 임시대통령의 중요 전보”를 보내오에 따라,¹⁴⁾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독립운동계 전체가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임시의정원은 태평양회의를 기회로 외교·재정 및 기타 방침에 대하여 의원 전체가 서명한 건의서를 이승만에게 보냈다.¹⁵⁾

이승만이 상해를 떠난 뒤, 신규식은 계속 이승만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마침 7월 10일 미국 Harding 대통령이 태평양회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소문으로 떠돌고 있었지만, 참가일정과 참가국가에 대한 정확한 결정사항이 발표된 것은 7월이었던 것이다.¹⁶⁾ 정부와 그 주변에서 활기가 일어났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기에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정부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우선 태평양회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전활동을 시작했다. 신규식은 이시영·이동녕 등과 더불어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각계 인사들에 대한 선전활동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규식이 이끄는 내각

11) 「임시대통령 諭告」(1921.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정부수반, 75~79쪽.

12) 「李承晩이 申圭植에게 보낸 서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 서한집 I, 201쪽.

13) 「李承晩이 張鵬(滄南)에게 보낸 서한」(1921.7.1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2, 서한집 I, 198쪽.

14)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31호, 『조선민족운동연감』 1921.8.5.

15)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32호, 『조선민족운동연감』 1921.8.22.

16) 참가국은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중국·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 등 9개 국가이다.

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승만이 상해를 떠난 사실에 대해 비난이 집중되었지만, 태평양회의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자 임시정부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일단 잦아들었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기에 거리를 두던 인물조차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이하 후원회로 줄임) 결성에 참여하였다.

이 후원회는 8월 13일 상해 프랑스조계 白爾路 439호에 있던 교민단 회관에서 100명 넘는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발의되고 결성되었다. 26일 열린 3회 총회는 임시의정원 의장이던 洪鎭을 간사장으로 뽑고, 그 아래 서무와 재무를 맡을 전임 간사와 일반 간사를 뽑아 조직을 갖추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별연설회를 열기도 했다. 9월 초, 임시의정원 의장이자 후원회 간사장을 맡은 홍진이 주최하고 안창호가 강연을 맡은 연설회가 교민단 회관에서 열린 것이다.¹⁷⁾ 그 자리에서 「선언서」가 채택되었다. 태평양회의에 참가한 열국이 동양평화의 근본문제인 대한의 독립을 완전히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각지의 동포와 단체가 연결하여 일치단결 선전활동에 나서며, 이를 재정적으로 후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승만과 신규식의 계산된 의도였다면, 일단 정국안정이라는 면에서는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신규식은 이승만이 전문으로 보내온 정부 지시에 맞춰 일을 진행하고 답을 보냈다. 8월 30일 신규식은 국무회의를 열어 태평양회의에 제출할 대한민국의 요구서를 작성 통과시켰다.¹⁸⁾ 이러한 사실이 國務院 公文 제26호에 ‘太平洋會議에 關하여’라는 항목에 들어있다. 보고 요지는 미국 대통령 제의가 나온 뒤 모두 긴장하고, 내외 유지가 후원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 회의가 우리나라 문제와 운명 결정할 것, 또한 成敗利鈍을 떠나 정부와 인민이 반드시 전심전력 준비를 진행하겠으니, 그곳에서도 외교 노력 다할 줄 믿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승만이 앞서 전문으로 요청한대로 “駐劄 歐美委員部 臨時委員長 徐載弼 博士로 太平洋會議에 出席할 正代表로 임명하고, 태평양회의에 제출할 요구서를 要領·序言·條件·理由·結論으로 서술하여 국무회의 의결 거친 뒤 대표 任命狀과 같이 우송한다.”고 밝혔다. 그러니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하고, 부대표 인선과 경비는 의논중이니 의견을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태평양회의에 관하여 포고를 발표하라는 전부 지시에 따라 30일 임시대통령 포고문 제2호를 공포하고 공보 31호에 게재한다고 보고하였다.¹⁹⁾

신규식은 이승만을 태평양회의에 참가할 대표장으로, 서재필을 출석대표로 각각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다가 이 회의에 제출할 「요구서」를 요령·서언·조건·이유·결론 등으로 작성하였으니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해달라고 이승만에게 주문하였다.²⁰⁾ 이승만도 미국에서 9월 9일자로 국무원과 신규식에게 보낸 공함에서 “태평양대회는 吾族의 莫大한 기회라. 마땅히 극력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워싱턴대회에 참가권을 요구할 것이며 우리가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²¹⁾

9월 2일 이승만이 인선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규식은 9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표장 이승

17) 『조선민족운동연감』 1921년.

18)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34호, 『조선민족운동연감』 1921.8.30.

19) 「國務院 公文」 제26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정부수반, 145쪽.

20) 「國務院 公文」 제27호(1921.9.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146~159쪽; 「워싱턴 근축회의에 파견할 대한민국 대표의 임명동의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41~44쪽.

21) 「임시대통령 函」 제2호(정부지시; 1921.9.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84~86쪽.

만, 대표 서재필, 서기 정한경, 고문 Fred A. Dolph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으로 의결한 사실을 영문 전보로 알리고, 태평양회의에 제출할 요구 서류도 보냈다고 보고하였다. 9월 25일에 대표단 인선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임시의정원 회의를 소집한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담아 보냈다.²²⁾

9월 25일 임시의정원 제9회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신규식은 告辭를 통해 임시예산안과 태평양회의 대표인선안 등을 의제로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²³⁾ 29일 임시의정원은 太平洋會議에 對한 臨時豫算을 임시 정부에 일임하여 편성 집행케 하기로 議決하고, 인선도 제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결과를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이름으로 ‘軍備制限會議에 出席할 大韓民國代表團 任命案을 同意하는 證書’에 담아 이승만에게 보냈다. 거기에 덧붙여 대한민국 국무총리 외무총장 신규식의 서명으로 이 내용을 증명하는 뜻을 담은 ‘此 書類를 接覽하는 衆位에게 宣함’이란 문건을 함께 보냈다.²⁴⁾

여기에서 신규식이 갑자기 사라졌다. 10월 1일 임시의정원 제9회 회의 폐원식에 신규식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노백린 군무총장이 참석하여 의원들에게 정부 제안에 찬동해 준 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를 앞서 의회 의결내용에 확인 서명했던 신규식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다름 아니라 상해를 떠나 광둥으로 향한 때문이다.

IV. 광둥 호법정부 방문과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신규식은 9월 30일자 정무보고(國務院 呈文 제28호)에서 태평양회의에 제출할 요구서를 보냈다고 적고, 중국 대표(總代表는 現任 外務總長 顏惠慶)가 워싱턴에 도착하면 각하를 방문하도록 교섭할 터이니 접촉하기 바란다고 썼다. 이어서 ‘廣東(中華民國)에 派遣하는 特使 任命에 關하여’라고 보고하였다.

각하의 渡美하기 前에 已爲 內命하신 바에 依하여 九月 二十二日 國務會議에서 本職을 廣東(中華民國)에 派遣하는 特使로 任命하기로 決定되야 三十日에 發程하옵는데 往還日字는 三週日乃至四週日로 爲定이오며 今次 此行은 廣東政府를 內容으로 承認하야 我國政府와 因緣을 結하며 各界要人을 接洽 聯絡하고 今番 太平洋會議에 廣東政府의 代表派遣이 尙今 未定이오나 萬一 派遣케 되면 그 代表에게 預先 約束하야 我國問題를 會議에 提出케 하고 盡力 幫助케 하도록 하기 爲함에 不外하나이다.²⁵⁾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이승만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신규식에게 광둥 호법정부에 특사로 가서 외교활동을 펴라고 ‘內命’했다. 둘째, 이에 따라 신규식이 9월 30일 출발하여 3~4주 예정으로 광둥으로 간다. 셋째, 호법정부를 승인하고 우리 정부와 인연을 맺는다. 넷째, 태평양회의에 호법정부가 대표를 파견하면 우

22) 「國務院 呈文」 제27호(정무보고 : 1921.9.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146쪽.

23) 「大韓民國臨時政府 公報」 第35號, 대한민국 3년 9월 23일.

24) 「大韓民國臨時政府 公報」 第36號, 대한민국 3년 10월 2일.

25) 「國務院 呈文」 제28호 대한민국 3년 9월 3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정부수반, 159쪽.

리 문제를 제출하도록 힘써 돕게 한다.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던 때 호법정부가 세워져 외교활동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이승만이 미국으로 간 뒤 태평양회의가 제안됨에 따라 여기에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목적이 긴박하게 추가된 것이다. 신규식에게 주어진 과업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국무총리대리 겸 법무총장에다가, 이어서 외무총장까지 겸직했다. 그에게 주어진 핵심 임무는 정부를 든든하게 장악하여 원격지에 있는 임시대통령을 돕는 것, 태평양회의의 참가를 시도하는 임시대통령을 지원하는 것, 나아가 직접 호법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신규식은 광둥으로 떠나기 전, 중국과 일본의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하여 선전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태평양회의에 즈음하여 중국과 일본이 한국 독립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내건 선언서를 발표하고 발송했다. 중국 인사들에게는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야 하는 역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²⁶⁾ 일본의 법률단체 인사들에게는 한국문제가 유럽의 발칸 사정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東亞戰爭 발발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정부에 해결을 재촉하라고 요구하였다.²⁷⁾ 이러한 활동은 사전 정지작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중국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대리 외무총장 신규식’의 이름으로 「大韓民國臨時政府敬告中華民國各界諸君子書」를 발표하고 발송하였다. 문서 끝에 ‘대한민국 3년 10월’이라고 적힌 것으로 봐서, 신규식이 광둥으로 출발하는 때에 맞춰 준비하고 발표한 것이라 짐작된다. 그는 이 글에서 하딩 미국 대통령이 소집한 太平洋會議가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국제사회가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중국의 여러 인사들이 한국의 독립을 적극 도와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역사 이래 보여 왔던 중국의 인도주의적 입장의 계승, 유럽전쟁이 끝난 뒤 아시아를 감도는 전쟁 분위기를 막을 방법이자 세계평화를 도모함, 馬關條約 이래 약속된 국제신의를 되살림, 脣齒關係를 가진 양국의 정세 등이 그 이유였다. 이 글은 마침 태평양회의를 앞두고 있으니 그에 맞는 원조를 해달라고 매듭을 지었다.

지금은 태평양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화 각계 인사들은 한마음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중화민국 대표들에게 한국의 독립문제가 의안으로 제출되어 세계의 공평한 판단을 얻을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한국을 원조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태평양회의에 중국대표를 파견하고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기하여 세계의 公判을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신규식은 각종 언론을 통한 원조와 실제적인 도움을 바란다면, 중화민국의 행복과 평화가 대한의 행복과 평화요, 이것이 실현되면 온 인류가 평등한 대동세상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식이 중국인들에게 보낸 글은 중국의 『申報』에도 「태평양회의와 한국문제」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²⁸⁾

26) 「大韓民國臨時政府敬告中華民國各界諸君子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 외교활동, 10쪽.

27) 『申報』, 1921년 10월 5일자.

이어서 신규식은 일본의 각 법률단체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우리나라를 욕심낸 나라는 귀국이다. 지금 태평양회의를 앞두고 본국에서는 대회에 대표를 파견하려 한다. 귀국은 국제조약에 따라 대회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 문제는 귀국의 자구책 가운데 상책이다. 발칸문제 때문에 유럽전쟁이 일어났듯이 지금 귀국의 지위가 바로 서방의 발칸 사정과 똑같다. 때문에 동아전쟁이 일단 발동되면 귀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참여할 것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는다. 본국 문제가 토의될 것을 희망하며 귀 정부를 재촉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귀국을 위한 자구책이며 양국을 위한 일이다.²⁹⁾

주장의 요지는 한국의 독립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일구어낼 수 없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법률단체가 나서서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태평양회의에 제출하고 해결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보도된 시기가 1921년 10월 5일이므로, 통고서도 앞의 중국인사에게 발송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식이 상해를 출발하던 무렵에 보낸 것 같다.

앞서 국무원 정문 28호에서 보았듯이 신규식은 9월 30일 상해를 출발한다고 밝혔다.³⁰⁾ 閱冊鎬를 수행원으로 삼고 상해 滙山埠頭에서 1만 톤급의 프랑스 우편선 S. Sniel을 타고 출발하고, 이틀 뒤 홍콩에 도착하였다. 신규식은 그곳에서 雲南의 주요인물인 唐繼堯를 만났고, 그로부터 운남에 돌아가면 한국을 위해 최소한 2개 사단의 군관인재들을 양성하여 한국의 혁명을 원조하고 또 中佛銀行의 예금문제가 해결될 경우 10만 원을 찬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³¹⁾

10월 11일 신규식은 광주에 도착했다.³²⁾ 다음 날 그는 觀音山 아래에 있던 비상총통부를 방문하여 胡漢民(대통령 비서장)을 만난 다음, 외교부에 들러 伍廷芳(호법정부 외교부장)을 만나 국제관례에 따라 대총통 집권 절차를 밟았다. 그는 그런 뒤에 다시 관음산 중턱에 터를 잡은 대총통 관저를 방문하여 손문을 만났다.³³⁾ 이러한 정황에 대해 일본 정보보고는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28) 「태평양회의와 한국문제」, 『申報』(1921.10.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9권 중국보도기사 1, 151쪽.

29) 강영심, 『신규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129~130쪽.

30) 회고록인 『한중외교사화』와 당시 신문기록, 그리고 일제정보보고를 비교해 보면, 민필호의 회고는 실제 있었던 일과 대개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보였다(배경환, 『쑨원과 한국』, 한울아카데미, 2007, 84~87쪽). 20년이나 지난 시점에 회고록으로 저술된 탓이다. 민필호의 기억은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인 예가 신규식이 손문을 만난 날짜와 국서를 봉정한 장소이다. 민필호는 신규식이 손문을 만난 날짜를 11월 3일로 기록했지만, 손문은 그 당시 광주에 없었다. 실제 중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신규식·손문의 면담은 10월 초에 이루어졌다. 또 국서를 봉정한 장소와 계기에 대해, 민필호는 11월 18일 신규식이 東較場에서 열린 北伐誓詞式에 참석하여 국민의 예우를 받았고, 거기에서 국서를 봉정했다고 적었다(한중외교사화). 하지만 중국 기록에는 그 어디에도 북벌서사전례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10월 10일 신해혁명 1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이 동교장이 아닌 북교장에서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雙十節之廣東』, 『四民報』 1921년 10월 15일자 1~4면(배경환, 『쑨원과 한국』, 한울아카데미, 2007, 87쪽에서 재인용).

31)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위음, 『石麟 閱冊鎬傳』, 나남출판, 1995, 224쪽. 당계요는 운남강무당(군관학교)에 한인 학생 50여 명을 졸업시킴으로써 군관인재들을 양성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상해 중불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예금을 찾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까지는 이행하지 못했다.

32) 「가칭 上海假政府 법무총장의 廣東행」(광둥 주재 총영사 통보, 1921.1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 외교활동, 12쪽.

33) 『四民報』 1921년 10월 16일자; 『廣東群報四民報』 1921년 10월 18일자.

가칭 대한임시정부 법무총장, 국무총리 겸임 申圭植이 廣東에 간 것은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은데, 이 일행은 불령선인 십 수 명으로서 10월 11일 廣東에 도착하여 중국 남방정부 伍 외교차장 이하 다수 관민의 마음을 받고 곧바로 總統府에 들어가 그 이래 체재 중이라 함.³⁴⁾

신규식은 손문에게 다음과 같은 「互惠條約 五款」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 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護法政府를 중국 정통의 정부로 승인함. 아울러 그 元首와 국권을 존중함.
- 2) 大中華民國 호법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요청함.
- 3) 한국 학생의 中華民國 軍官學校 수용을 허가하기를 요청함.
- 4) 차관 5백만 원을 요청함.
- 5) 租借地帶를 허락하여 한국독립군 양성에 도움이 되게 하기를 요청함.³⁵⁾

제1·2항은 상호 승인을 요구한 것이고, 제3항은 한국학생의 군사간부 육성을 도와달라는 것이며, 제4·5항은 경제적 지원과 근거지 제공을 부탁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손문은 신규식의 요구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왜냐하면 손문이 이끄는 호법정부 자체가 아직 광동성이라는 일부 지역만 장악하고 있어 자신들도 다른 나라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그만큼 활동영역이나 재정 면에서 전혀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하나씩 설명한 뒤, 대신 한인청년에 대한 군사교육에 관해서는 “군관학교에 귀국 자제를 전부 수용하여야 한다고 명령을 전달하겠다. 租借地를 가지고 군사를 훈련시켜 혁명의 근거지로 삼는다는 데 대하여 나는 북방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지만, 호법정부의 역량으로는 아직 도달치 못하고 있으니 (중략) 일제의 실력 원조는 북벌계획이 완성됨을 기다린 후 시기가 오면 全力으로 한국 광복운동을 원조하겠다.”라고 답함으로써,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에 옮긴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³⁶⁾

신규식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상호승인 문제는 형식과 실제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를 드러냈다. 형식적으로 완전히 상호승인이 이루어지려면 양 국가의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쌍방이 이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상호승인’을 이루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 첫째 이유는 비록 ‘정부승인’은 아닐지라도 이를 찬성하는 손문의 의지가 광동국회에서 ‘한국독립승인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는 점이다.³⁷⁾ 둘째 이유는 신규식이 손문에게서 공식적인 외교관계 성립을 상징하는 공식접견의 기회를 받아냈다는 점이다. 마침 10월 10일 廣州 北較場에서 열린 신해혁명 10주년기념식에서 신규식이 임시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정식 외교절차에 따라 대총통을 접견하는 의식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셋째 이유는 임

관음산은 현재 粵秀公園으로 가꾸어져 있고, 중턱에 있던 손문의 관저 자리에 ‘孫先生讀書治事處’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34) 「가칭 上海假政府 법무총장의 廣東행」(광동 주재 총영사 통보, 1921.11.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 외교활동, 12쪽.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 외교활동, 12쪽.

35)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232쪽.

36)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238쪽.

37) 『獨立新聞』, 1921년 12월 6일자.

시정부가 1922년 2월에 외무부 외사국장 朴贊翊을 광동주재 임시정부 대표로 파견하여 외교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는데,³⁸⁾ 호법정부에 駐劄하는 동안 호법정부로부터 매월 광동화폐인 毫洋 5백 元씩, 6개월에 걸쳐 원조를 받았다는 점이다.³⁹⁾

이처럼 광동 호법정부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문제 처리는 손문의 개인적인 견해 표명이나 호법정부의 비공식적인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시정부의 외교관을 광동에 머물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 조치는 사실상 외교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합의에 따라 임시정부가 파견한 대표가 광주에 머물면서 활동했다는 사실도 호법정부가 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했음을 말해준다.⁴⁰⁾

이와 같은 외교적 성과는 임시정부가 소련에 이어 두 번째로 성립시킨 공식적인 외교관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신규식이 임시정부 수립 이전부터 손문을 비롯한 중국혁명지사들과 교류하며 협력관계를 마련해 놓은 데 있었다.⁴¹⁾ 따라서 상호승인문제에 대해 양측은 정확한 의미에서 볼 때 모두 합법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승인’을 일구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²⁾

신규식이 상해를 출발할 때 목표로 삼은 것 가운데 태평양회의에 대한 협의 결과는 앞에서 본 「互惠條約五款」에 들어 있지 않았다. 신규식은 이승만에게 광동정부의 외교대표 이름을 알려주면서 적절한 기회에 만나 공동대응책을 논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아, 이 주제가 손문과의 면담에서 다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이승만은 신규식의 주문에 대해 중국대표에게 태평양회의에 보내는 요구서를 등사하여 보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대표와 교섭하려하나 상대가 적극적이지 않으니 때를 봐서 우호를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만은 신규식이 광동에서 많은 결과를 얻을 줄 믿는다고 기대하면서 전신으로 자금을 보내기도 하였다.⁴³⁾

신규식이 손문에게 요청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회의에 공동 대처하자는 주문이었다. 먼저 신규식은 손문에게 태평양회의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이미 임시정부가 파리와 워싱턴에 歐美委員部를 만들고 범태평양회의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선전에 노력하고 있으니, 호법정부도 그들의 대표에게 한국대표와 호응하도록 훈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문은 태평양회의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호법정부 대표에게 훈령을 내려 양국 대표의 협조를 이끌어내자는 데 신규식과 합의하였다.⁴⁴⁾

38) 강영심, 「申圭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247쪽.

39) 민필호, 「韓國獨立運動에 協助한 中國人士」,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146쪽.

40) 배경한, 『쑨원과 한국』, 한울아카데미, 2007, 91~92쪽.

41) 강영심, 「申圭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247쪽.

42) 배경한, 「孫文과 上海韓國臨時政府—申圭植의 廣州訪問(1921년 9~10월)과 廣東護法政府의 韓國臨時政府 承認問題를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56, 1996, 109쪽.

43) 「임시대통령 函 제4호」(정무 지시 : 1921.11.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정부수반, 88쪽.

44)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237, 239쪽.

호법정부는 당시 중국북방정부가 태평양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자 이를 부정하고 북방대표 승인을 중국의 내정간섭으로 규정

태평양회의에 대한 양 정부 사이의 협조 약속은 당장 광둥지역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광주의 中韓協會가 “華盛頓에서 열리는 태평양회의에 대하여 한중에 대한 요구조건을 전보로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⁴⁵⁾ 이어서 이 협회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체의 비밀조약과 강박조약,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한 ‘을사조약’과 합병조약, 중국에 대한 21개조 산동문제 등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한국독립과 중국영토의 완전 담보를 약속한 馬關條約의 완전 이행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⁴⁶⁾

신규식이 호법정부를 방문하는 동안, 광동의 신문도 그에 대해 호감을 갖고 보도하였다. 대표적으로 『廣東群報』가 「政府對付韓使之態度」라는 제목 아래 신규식의 방문을 자세하게 보도한 것을 들 수 있다. 머릿글만 보아도 호법정부 요인들이 신규식에 대해 극진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신정부가 그를 접대하는 데 정부 각 요인이 비록 국제관례에 따라 아직 정식으로 접견할 수 없지만 申君이 다년간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 만약 형세에 구애된다면 매우 편치 않을 것이라. 특별히 사사로서 정을 나누고 여러 차례 만나기를 청하니 大理院長 徐季龍 등의 요인들이 연일 老友로서의 정을 나누고 연회를 열어 환영하고 있다.⁴⁷⁾

호법정부의 극진한 대우는 신규식의 병환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신규식이 과로로 말미암아 불면증에 걸려 광주 韜美醫院에 입원하였을 때, 손문 총통은 호양 천 원을 치료비로 보내주었고, 또 호법정부 大理院 원장 서겸과 총통부 비서장 호한민으로 하여금 문병하도록 하였다.⁴⁸⁾

신규식은 광동에 주재하고 있던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한국문제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는 의사인 李聖耀에게 프랑스어 통역을 맡기고 광동시내 沙面 지역에 주재하는 각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독립 문제를 선전하였다. 또 12월에 新新호텔에 각국의 영사들을 초청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미국·프랑스 영사 및 총통부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때 신규식은 중국어로 연설하였으니, 3.1운동 경과와 각지 운동의 근황, 중국호법정부가 한국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한 경과를 설명한 다음, 이에 열국이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한층 더 원조하고 지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부탁하였다.⁴⁹⁾ 프랑스 영사와 미국 영사가 각각 축사를 하였다. 이 행사가 신규식이 광동에서 펼친 마지막 일정이었다.

신규식의 외교활동은 호법정부에게서 ‘사실상 승인’을 획득하였고, 호법정부가 北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태평양회의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입장

하면서, 열강의 이권과 일본의 21개조에 대한 불인정을 선언하였다(『獨立新聞』, 1921년 12월 6일자).

45) 『獨立新聞』 1921년 11월 11일자. 1921년 9월 安徽省 의원인 丁象謙, 북경에서 남하한 국회의원 謝英伯·朱念祖·高振宵·張啓榮·葉夏聲, 호법정부 사법부장 서겸 등은 한인 金禮庭·金熙譚·朴化祐·孫士敏 등과 함께 광주에서 중한협회를 결성하였다(국회도서관, 『韓國民族運動史料』 三—運動篇 其二, 1976, 634쪽) 9월 27일에 중한협회는 선언을 발표하고 중국과 한국의 제휴와 互助 등을 주장하였다(『在上海共產黨首領呂運亨取調狀況に關する件』,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6, 1989, 454쪽).

46) 『獨立新聞』 1921년 11월 19일자.

47) 『廣東群報』 1921년 10월 18일자(재광동일본총영사가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에 스크랩된 기사).

48) 민필호, 『韓國獨立運動에 協助한 中國人士』, 김준엽 역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146쪽.

49) 민필호, 『韓中外交史話』, 김준엽 역음, 『石麟 閔弼鎬傳』, 나남출판, 1995, 255쪽.

에도 호법정부와 합의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신규식의 광동행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신규식이 펼친 외교활동은 이승만과 미리 약속한 것이기도 했고, 두 사람이 태평양회의의 현장과 호법정부가 있는 광동으로 나뉘어 긴밀하게 협력한 것은 돋보이는 활약이었다.

V. 상해 귀환과 최후의 노력, 그리고 좌절

12월 중순 신규식은 상해로 돌아왔다. 이때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된 태평양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 무렵 구미위원부 통신은 「정부소식」이라는 제목 아래 신규식이 특별한 사명을 띠고 중국 광동정부 대통령 손일선을 방문하여 특별 연락을 맺었는데, 이 대통령의 호의를 표함에 손문 통령이 돈독한 뜻으로 답사했다는 소식을 실었다.⁵⁰⁾

신규식은 상해로 돌아오자마자 외교의 성과를 널리 알렸다. 우선 박찬익을 호법정부에 파견하였다. 이어서 12월 14일, 그는 상해 大東旅社에서 중국 인사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광동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했다. 승인문제를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태평양회의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워싱턴회의는 끝내 한국문제를 외면했다. 한국문제는 커녕 대표 참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 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서로의 권익을 확보하는 협력체제를 갖추자는 것으로, 한국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한국인이 기대한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 요원한 것이었고, 미국도 그러한 전쟁을 미연에 막는 데 목표를 두고 해군 전함 보유량을 제한한다거나 태평양 島嶼에 대한 소유권에 선을 긋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문제를 다루지도 않거나와 한국대표단을 승인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한국대표가 회의장에 접근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여기에 매달려 국내의 한국인들이 노력을 집중했으니, 돌아오는 허무감은 더 컸다.

더구나 광동 호법정부마저도 태평양회의와 등을 돌렸다. 미국이 북경정부에 대표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호법정부 대표를 끼워넣는 타협안을 끌어내려하자, 손문은 이에 반발하면서 대표 파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므로 신규식의 광동 방문과 활동이 목표로 삼았던 두 가지 사안 가운데 태평양회의에 대한 공동대응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결과에 따른 영향 또한 클 수밖에 없었다.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외교수단을 총동원하여 활동을 폈지만, 1922년 2월 6일 태평양회의가 기대한 것과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끝나버리자, 임시 정부는 다시 안팎으로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다. 태평양회의의 전후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국민대표회 추진운동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신규식은 1922년 2월 8일 임시의정원 제10회 회의 개최식에 이시영 재무총장, 노백린 군무총장, 안창호 노동국총관, 김구 경무국장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⁵¹⁾ 이때는 이미 태평양회의가 막을 내릴 무렵이었다. 그러

50) 「구미위원부 통신」 제39호(『신한민보』 1921. 12. 1)

니 신규식의 「告辭」는 비감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독립을 선언한 지 4년을 맞지만 아직 성취한 것이 없고 한 치 땅도 회복하지도 못했음은 온 민족이 통탄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국무원 모두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재능 부족으로 대업을 진진 성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推賢讓能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나와 각료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⁵²⁾

신규식 내각은 마침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작정하였다. 내무총장 이동녕이 1922년 2월 말에 사면서를 제출하자, 신규식은 3월 20일 이시영과 함께 사직하고 말았다.⁵³⁾ 盧伯麟 군무총장을 제외한 국무원 전원이 총사퇴를 결의하고 만 셈이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빠져들었다.

신규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컸다.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일생일대의 승부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제10회 임시의정원회의에서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인민청원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터져 나왔다. 신규식은 임시정부의 이러한 분열 상태를 비판하여 5~6월경부터 심장병과 신경쇠약으로 병석에 누워야 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중태에 빠졌다.⁵⁴⁾ 여기에 믿고 있던 광동정부가 타격을 입은 소식은 돌이킬 수 없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9월 25일 밤 9시 반, 신규식은 상해 福照路 愛仁里 31호에서 순국하였다.⁵⁵⁾ 그는 이미 자신의 병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식과 약을 끊었고, 임시정부의 처지를 비판하여 입을 닫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을 이루어야한다는 부탁을 남겼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럼 잘 있으시오! 친구분들 나는 가겠소. 여러분들. 임시정부를 잘 간직하시고 삼천 만 동포를 위해 진력해 주시오. 나는 가겠소.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 후부터 줄곧 절식하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⁵⁶⁾

『申報』는 신규식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규식 총리가 지난 4월부터 몸이 불편하여 신경쇠약증에 걸렸는데도, 국사에 대해 너무 마음을 아파한 나머지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었는데, 건강으로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더 살 의미가 없다면서 의사가 권하는 약도 쓰지 않았고, 이달 1일부터는 아예 모든 음식까지 전폐하였다. 그는 음식도 전폐하고 약도 전폐하며 말도 전폐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렇게 20여 일을 지속하다가 어제 밤 9시에 거처하던 집에서 작고하였다.⁵⁷⁾

51) 『독립신문』, 1922년 2월 20일자.

52) 『독립신문』, 1922년 2월 20일자.

53) 『獨立新聞』, 1922년 3월 31일자. 盧伯麟 군무총장을 제외한 국무원 전원이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임시의정원은 4월 7일 임시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로 결의하게 되었다(『獨立新聞』, 1922년 4월 15일자). 여기에서도 임시의정원은 당시 추진되고 있었던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위한 인민청원안(千世憲 등 102인 청원)이 결국 14일에 통과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獨立新聞』, 1922년 6월 24일자).

54) 『獨立新聞』, 1922년 7월 8일자.

55) 『獨立新聞』, 1922년 9월 30일자.

56) 민필호, 「申圭植先生傳記」, 김준엽 엮음, 『石麟 閔弼鎬傳』, 1995, 319쪽.

이 기사는 신규식의 병환이 임시정부의 형세에 따라 더욱 깊어졌고 또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 나갈 의미를 상실했다는 점, 그리고 9월 1일부터 스스로 식음을 끊고 말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이 기사는 신규식의 죽음이 표면적으로 病死이지만, 사실상 ‘自決殉國’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혼절한 상태에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뱉은 말이 “정부, 정부”였다고 전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VI. 맺음말

신규식은 상해에 한국 독립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한 인물이다. 더구나 1910년대에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정세를 지켜보면서 제2인터내셔널 회의에 조선사회당 이름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전문을 보낸 인물이기도 하다. 그만큼 신규식은 외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그는 중국어에 능통하고, 신해혁명에 발을 디딘 뒤로 중국 혁명인사들과 교류하는 폭이 넓고 깊었다. 그의 이러한 능력과 활동 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뒤, 신병으로 한 발 물러나 있던 신규식이 다시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는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상해를 방문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마침 1921년 4월 광둥에서 호법정부가 세워지고, 5월에 이승만이 상해를 떠나면서 정국 운영권을 신규식 손에 쥐어 주었다. 여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 협력관계가 성립되었다. 이승만이 상해의 혼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떠나면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해낼 인물이 필요했다. 정국 안정은 당연하고, 마침 세워진 광둥정부에 외교활동을 펼쳐 승인받거나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승만으로는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발표된 태평양회의 소식에 광둥정부에 태평양회의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신규식이 가장 적합한 인물로 받아들여졌다.

신규식은 태평양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초청된 광둥정부와 공동대응책을 만들어낸다면 외교활동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국무총리와 법무·외무총장을 겸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승만에게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만들어 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광둥정부로 가서 손문을 만나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임시정부를 승인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회의에 공동대응하자는 것이다. 손문은 여기에 찬성하고, 임시정부의 외교관이 광둥에 머물게 허락하면서 체류비도 보조해 주기 시작했다. 임시정부 승인 문제도 형식적으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인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것은 모두 신규식의 외교가 거둔 성과였다.

하지만 태평양회의는 끝내 한국문제를 외면하였다. 북방정부도 참가시키자 손문이 이끈 광둥정부는 태평양회의 참가를 거부하고 물러서버렸다. 따라서 한국문제는 아예 주제로 선정되지도 못했다. 그 후폭풍은 매섭게

57) 『申報』, 1922년 9월 27일자.

몰아쳤다. 잠시 주춤했던 임시정부 주변의 혼선과 갈등은 다시 재연하였고, 이는 단순한 재연이 아니라 앞서보다 더 강한 혼돈을 가져왔다. 이에 평소 신병에 시달리던 신규식은 급격하게 쇠약해져 순국하고 말았다.

그가 펼친 호법정부와의 외교활동은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였다. 신규식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임시정부를 살려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계의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이다. 중국신문이 그의 죽음을 ‘자결순국’으로 평가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참고문헌〉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배경한, 『쑨원과 한국』, 한올아카데미, 2007.

강영심, 『신규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김희곤,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연구』, 지식산업사, 2015.

배경한, 「孫文과 上海韓國臨時政府 - 申圭植의 廣州訪問(1921년 9~10월)과 廣東護法政府의 韓國臨時政府 承認問題를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56, 1996.

이재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護法政府와의 외교관계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 이 논문은 2022년 2월 24일에 투고되어,
2022년 3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4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The Pacific Conference and Shin Kyusik

Kim, Heegon*

Shin Kyusik is a representative figure who prepared a bridgehead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Shanghai in the 1910s. He was fluent in Chinese and interacted with Chinese revolutionaries after stepping into the 1911 Revolution in China. His activitie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e was sick and took a step back. Then in December 1920, when the temporary president Rhee Syngman visited Shanghai, Shin Kyusik actively took the lead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April 1921, when the Guangdong Government of China was established, and Rhee Syngman left Shanghai in May, it was Shin Kyusik who led the political operation at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ere, a cooperative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 two.

As Rhee Syngman left without being able to recover from the chaos of injury, he needed a person to perform two tasks. The one was stability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other was to conduct diplomatic activities to the Guangdong Government of China to obtain approval or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Moreover, Rhee Syngman, who heard the news of the Pacific Conference as soon as he arrived in the U.S., needed Shin Kyusik's performance. This is because Shin Kyusik was considered the most suitable person to draw cooperation with the Guangdong Government of China in the Pacific Conference.

He asked for two things on the spot. One is to approv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other is to jointly respond to the Pacific Conference. Sun Wen(孫文) agreed with this, and began to subsidize the cost of staying as diplomats from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llowed them to stay in Guangdong. In addition, al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form, the Guangdong Government of China actually approve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is was an achievement of Shin Kyusik's diplomatic activities.

However, the Pacific Conference eventually turned a blind eye to Korean issues. When the

*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Director

U.S. also invited Northern Government of China, the representative of the Guangdong Government of China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Pacific Conference and turned around. Therefore, the Korean problem was not selected as a topic at all. The aftermath was fierce. Confusion and conflict arou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had slowed down for a while, were reenacted and intensified again. As a result, Shin Kyusik who had usually suffered from illness, rapidly weakened and died.

His diplomatic activities against the Guangdong Government of China were the last winning move. He cried out tha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hould be saved until the moment he took his last breath. That was the reason why the Chinese newspaper evaluated his death as a “Martyrdom for country.”

[Keywords] Shin Kyusik(申圭植),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Pacific Conference, Rhee Syngman(李承晚), Sun Wen(孫文), Guangdong Government of China